

조계종 '한국불교 세계화 대장정'

제33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첫 미국 순방(上) LA

지난 14일 미국 순방길에 오른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조계종 대표단은 '세계의 수도'인 뉴욕과 '미국 제2의 도시'인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화두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9월14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의 대장정에 오른 조계종 대표단은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한편, 지구촌 시대에 걸맞은 종단의 역할을 모색하는 중이다. 새로운 시대적 변화의 선두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겠다는 원력으로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첫 걸음을 내딛은 미국 순방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취임 후 첫 미국 순방길에 오른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환영하는 대법회가 지난 15일 오후6시(현지시각) LA 관음사 대강당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은 환영대법회가 끝난 후 동참 대중들과 함께 웃으며 기념촬영 중인 조계종 대표단.

지구촌시대 종단역할 모색 첫 걸음 내딛다



“황무지 포교 노력에 경의” 현지 불자 격려
동국대 LA캠퍼스 ‘美 한의학 대표’ 성장 당부
대만계 서래사 ‘세계화 모범사례’ 관심 표명

○... 총무원장 스님과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조계종 대표단’이 미국에 첫발을 내딛은 것은 지난 14일 오후2시(현지시각, 이하 같음) LA 공항이다.

김재수 LA총영사의 영접을 받고 입국한 총무원장 스님과 대표단은 LA 한인 불교계의 환영을 받았다.

○... 첫 공식 일정은 지난 14일 오후6시 LA 한인타운 안에 있는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 대표단과 김재수 LA총영사를 비롯해 LA에서 활동하는 스님과 불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대표단을 환영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포교를 위해 노력하는 스님과 불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격려했다.

○... 미국 방문 이틀째인 지난 15일 총무원장 스님과 대표단은 아침 일찍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소속 동국대 LA캠퍼스를 방문했다. 오전9시30분 학교에 도착한 대표단은 학교시설을 돌아보고 김인식 총장에 게 학교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정상화에 애

써주는 데 감사한다”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한의학 전문대학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김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후,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일일이 단추를 걸어주면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스님은 흑자 전환에 대해 격려한 후 수행한 스님들에게 학교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표단 공동단장 혜경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불교 신행활동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채플(기독교 계통 설립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예배)이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불교를 강요하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자들이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법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위특별교구 담당 총책특별무애스님(중앙종회의원)도 “(학교) 공간이 협소하지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가능한 학교 설립의 취지를 살려서 한의학과 불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달라”고 총장에게 당부했다.

대표단 공동단장 토진스님(조계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5일 서래사를 참배(사진 위)한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가 마련한 환영법회에서 현지 스님들을 비롯한 불자들의 포교 노력을 격려했다.

사 주지)은 “(미국의) 주류사회도 중요하지만 한국에서 온 유학생과 교민들을 불교적으로 보살피고 불교적 가치관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본분 가운데 하나”라면서 “한국인이 불교적인 가치관을 잊지 말고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총무원장 스님과 대표단은 15일 오전 일정을 마친 후 LA 인근에 위치한 서래사를 참배했다. 서래사는 대만의 불광산사에서 창건한 대규모 도량이다. 참배를 마친 후 차담을 하는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한국불교 세계화에 대한 강한 의

지를 표명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대만 불광산사) 성운스님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불사를 우리 종단도 보고 배우겠다”면서 “(불교 세계화의) 모범사례”라고 평했다. 이어 “LA에 있는 한국 스님들이 포교를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제한 후 “처음 서래사에 왔지만, 부려움과 함께 우리 종단도 LA에 이렇게 (서래사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도 생긴다”면서 “조계종도 의지를 갖고 서래사와 같은 사찰을 해외에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밝혔다.

○... 총무원장 스님과 대표단을 환영하는 대법회가 15일 오후6시

조계종 대표단 명단
(LA 도착 중무원)

혜경스님(공동 대표단장, 총무원 사회부장), 토진스님(공동 대표단장, 조계사 주지), 정념스님(초심혜계원장), 노현스님(5교구본사 범주사 주지), 호성스님(16교구본사 교운사 주지), 법만스님(24교구본사 선운사 주

지), 무애스님(해위특별교구 담당 특별), 경우스님(총무원 사서실장), 종민스님(총무원 총무국장), 덕조스님(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무관스님(총무원 호법국장), 선혜스님(총무원장 사서), 김영일 총무원 기획차장, 박종학 총무원 사찰교무팀장, 이민우 불교문화사업단 팀장, 김단인 불교문화사업단 주임, 장학수 기획실 홍보팀 주임.

LA 관음사에서 봉행됐다.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주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법문을 하게 되었다”면서 법문을 시작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781년 LA 다윈타운의 올레가 거리에 스페인 이민자 44명이 처음 정착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이곳에 어떤 사연을 안고 왔는지 모르지만, 척박한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법문을 이어갔다. 총무원장 스님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극락세계”라면서 “처치안락국(處處安樂國)임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생전에 고통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는 순간들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극락”이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극락임을 잊지 말고, 항상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LA 불교 발전을 위해 그동안 공헌한 불자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김정선(고려사) △황경권(전 LA포교사단장) △신용균(전 LA포교사단장) △써니박(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 합창단장). 이 가운데 신용균 전 LA포교사단장은 지난 10일 영결법요식을 거행한 고인(故人)으로, 포교사 활동을 함께 한 부인 신화성 씨가 대신 수상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법문에 앞서 관음사 주지 노현스님은 “동포불자뿐 아니라 미국 현지에도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전해지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남가주불교사원연합회장 만성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인류평화에 공헌할 수 있고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의 수장(首長)인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LA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순방을 계기로) 미국에 불교가 융성하고 세계평화가 이뤄져, 지구촌 전체에 법음(法音)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LA=이성수 기자
soolee@itbuigyo.com

공 고

종헌 제32조 내지 제34조 및 제50조, 중앙종회의원선거법(이하 법)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15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직선직 중앙종회의원

1. 선거 일시
▶ 불기2554(2010)년 10월 28일(음 9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2. 선거 교구명(투표소)
▶ 당해 교구(당해 교구본사)
3. 선거권자 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로서
1) 당해 교구의 재적승
2) 당해 교구 본말사 주지
3) 임명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당해 교구 본사 국장 이상의 중무원
4) 당해 교구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승
※ 단, 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거주승 신고기간
▶ 불기2554(2010)년 9월 22일(수) ~ 9월 28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불기2554(2010)년 10월 18일(월) ~ 10월 20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6. 입후보자등록 · 거주승신고 · 선거인명부열람 장소
▶ 당해 교구본사 중무소

직능대표 및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7. 선출 일자
▶ 불기2554(2010)년 10월 25일(음 9월 18일) 월요일
8. 입후보자 자격
▶ 직능대표 : 올원, 선원, 강원, 교육, 포교,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
▶ 비 구 니 :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9. 입후보자 등록장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공통사항

10. 입후보자 등록기간
▶ 불기2554(2010)년 10월 14일(목) ~ 10월 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 입후보자 등록서류
▶ 등록신청서(소정양식) 1부
▶ 이력서 1부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제적등본 각 1부 (단,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후적, 호주 승계나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전 제적등본 일체를 추가 제출)
▶ 신원조회서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12. 입후보자 자격
▶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서 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직능대표 선출위원회 회의

1. 회의일시 : 불기2554(2010)년 10월 25일(월) 오후 2시
2. 회의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

문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02)2011-1868
당해 교구본사 중무소

불기2554(2010)년 9월 22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심 경